

□ 기획연재 □

한국정보과학회,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로(4)

나의 회고와 제언

서울대학교 김영택*

지금의 한국정보과학회는 1973년 3월 3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창립 총회를 열면서 한국정보과학회로 발족하였다. 고려대 서남원 교수가 기획담당 부회장을 맡으며 회장으로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한상준 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고 사실상의 창립 총회를 치른 셈이다. 회장단을 비롯하여 임원들은 다양한 배경과 종사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학회의 모습을 갖춘 채 나는 학술담당 이사를 맡은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렇다 할 학술활동은 재정적인 문제에 가려서 어려움을 겪던 차에 전산학 전공 교수들이 모여서 분과 연구회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오늘의 전산교육 분과연구회다. 당시에 광운공대 전산학과 김경태 교수(작고)가 중심이 되어 중앙대 이경환 교수, 동국대 안사명 교수, 광운대 심재홍 교수 등과 새로이 임명되어 온 교수들이 속속 임회하여 회의 규모도 점차로 커지고 활동도 활발하였다.

나는 1979년에 퍼듀대학교에, 1980년에 일리노이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과학회와는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1980년 가을 총회에서 정보과학회 5대 회장에 피선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이듬해에 귀국하여 회무를 파악하고 관장하게 되었다.

막상 학회 운영을 하려하니 많은 문제가 가로 놓였다. 사무실은 종로에 있는 어느 사설 학원에서 책상도 없는 상태였고 운영비는 바닥이 난 상태이며 서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학회는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았다. 학회지는 장기간 발간되지 못하고 있었는

데 그 이유는 역시 비용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이때부터 나는 학회를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게 되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나 찾아나서게 되었는데 동료 교수인 김종상 교수가 동행해 주어서 지금도 그때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약속된 장소에 가면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수가 흔히 있었다. 한번은 금성의 강인구 박사를 찾아 군포를 방문했는데 불고기로 점심식사 대접을 받고 약속된 돈을 쥐어 주는데 그때 그의 인상은 지금도 짝고 흰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쯤은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된다. 어떤 분은 좋은 식당에서 고급식사를 시켜 대접하고 한푼의 돈도 주지 않고 이야기만 하여 밥값이 아깝고 시간이 아까워 아쉽기도 하였다. 물론 나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 도와주신 분들께 해드린 것이 없어 속으로는 늘 그분들께 사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학회는 광운공대 전산학과 심재홍 교수의 도움으로 학회 사무실을 광운대 전산소에 책상을 마련하였고 심교수 책임하에 학회 사무를 보도록 하여 광운대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았다. 나는 방과후에 자주 광운대에 출근하여 회무를 챙기기 때문에 나를 야간부 교수로 오인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후에 사정이 닿으면 차라리 한 강좌를 맡을 것을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학회 운영에는 경비와 장소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구성원의 동의와 운영 면에 찬성을 얻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나도 열심히 일을

*중신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제5대 회장

하였지만 학회 부회장단을 비롯하여 임원들도 열성적으로 움직여 주었다. 나는 학회 임원들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였으며 일이 있으면 임원들 집에 전화를 하여 상의하고 토론하곤 하였다. 밤 10시에 전화하여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2시에 전화하고 12시에 통화가 안되면 밤 1시, 2시까지 학회문제를 상의하곤 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밤잠을 설친 아주머니들께 미안하고 나 혼자만의 입장만 주장한 듯 하여 죄책감이 느껴진다.

그러던 중 1981년 송년회를 학회 임원들이 청와대 홍성원 박사를 초청하여 조출하게 치루려고 하였는데 결국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학회는 그분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시작하여 한국 IBM에서는 학회지 광고를 상당량 약속하였으며 삼성 등 국내 기업에서도 광고를 실는 쪽으로 기울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돈 문제를 풀게 되었고 회원들이 차츰 모이면서 학회는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학회의 체제 및 구성을 대폭 정비하여 실제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구성하고 평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학회는 물론 기업에 이르기까지 문호를 개방할 수 있게 되었다.

학회 총회를 조직위원장제로 고쳐서 가을과 봄에 서울과 지방에서 1회씩 개최하되 그 경비는 학회본부가 아닌 조직위원장 책임하에 조달하도록 하여 학회 재정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 첫 실험으로 1981년 가을 총회를 한양대 임인철 교수 책임하에 실시하였는데 우선 재정문제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전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임인철 교수는 전자공학회에서 얻은 많은 Know-how를 이용하여 사실상 학회의 개혁에 많은 조언을 주신 분으로 학회지의 년 2회에서 년 4회 발간을 주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지금도 나는 그 분이 그 압전한 체구 어디에서 그러한 용기가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였다.

이후 학회는 후임 회장단에서 성실히 운영하여 사무실도 마련하고 사무원도 증원하여 오늘의 모습을 이룬 것이 아닌가 본다. 결론은 학회는 어떤 사람이 맡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부실하게 될 수도 있고 충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보과학회가 지금의 훌륭한 학회가 된 것은 후임 회장단들이 모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일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우리 학회가 규모로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학회 크기는 우리나라에서 큰 학회편에 속하며 분과 연구회만 하여도 14개 정도이니 많은 전문적인 분야에 걸쳐서 충실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 학회는 젊은 층이 우수하며 층이 두꺼워 장래 문제는 더욱 낙관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 학회는 제도적 면이나 재정면이나 활동면에서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학회 논문지는 좀 더 발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즉 SCI에서 인정받는 논문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아마 학회를 위한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